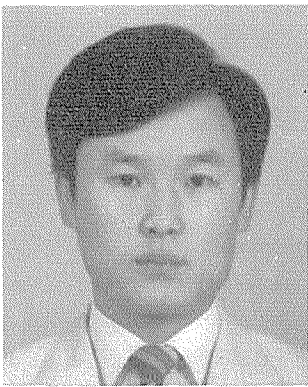


# 거듭나는 에너지정책 기대하며



朴 煥 吉  
〈유공업무부 과장〉

21세기 선진조국을 향해 달리는 우리나라가 길고 긴 터널을 이제 막 지나서 밝은 햇살을 맞이하고 있다. 실로 32년만에 국민적 여망에 의하여 탄생한 문민정부의 출범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의 일성으로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동력자원부가 폐지되고 상공자원부로 흡수·통합된데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나마 동력자원부에 대한 에너지정책의 수행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고 경험한 바 있는 정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마음 한구석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돌이켜 보면 동력자원부는 1973년말 제1차 석유위기의 악몽을 계기로 에너지분야에 대한 관심고조 및 70년대 성장주도정책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에의 안정적 에너지공급, 특히 원유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한 자원의교강화 필요성 등에 따라 1978년 1월에 상공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부처로서 출발하였다.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짧지만은 않았던 15년간 에너지 전담부처로서의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는 바, 출범직후의 제2차 석유위기를 시발로 80년대중반의 저유가시기, 1990년 걸프사태를 거쳐 최근의 UR

협상, EC통합 및 리우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과 국가(지역)이기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정세 및 에너지환경의 격랑속에서 때로는 바람 잘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밖에 없는 나뭇가지 신세가 된 적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산업정책, 물가정책, 민생정책등 여타 국가정책 목표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독자적인 추진력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부존자원의 부족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는 물론 석탄, 전력, 가스 등 산업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확보라는 국가경제의 첨병으로서의 최우선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 해온 숨은 일꾼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동력자원부가「국제석유시장정세가 과거와 같은 극도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예측·전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국내 석유수급문제 역시 그동안 공급시설의 확충 등으로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과 맞아 떨어져 마치 鳥飛梨落格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양이 되듯 독립부처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게 되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국내소요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도 中東지역의 정정불안 등으로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규제움직임 등 국제정세 및 환경의 급변에 대응한 에너지의 안정공급확보라는 1차적 소임에서부터 에너지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조정 및 지속적인 소비절약은 물론 국제화시

대에 대비한 국내에너지 관련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고려해 볼 때, '90년대에 있어서의 에너지문제는 더 넓고 더 복잡한 차원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풀어야 할 과제인만큼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게를 더해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유업계의 한사람으로서 동력자원부가 상공자원부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산업정책에 밀려 에너지정책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이보다는 보다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전략 수립 및 일관성있고 과감한 추진력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정부,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간에 수없이 논의 되어온 바 있는 것처럼,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향상은 물론 국내 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요관리위주로의 정책기조 전환에서부터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내지 자율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창의성 발휘유도 및 시장경쟁기능에 의한 효율성 제고, 나아가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국내 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주요정책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실현함으로써 제2의 경제도약을 준비하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특히 새로운 터전에서 걸프사태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었던 그때의 열과 성이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투영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